

토론

「저항의 풍경

: 1980년대 이후 노동 다큐의 변화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김지연 ■ 연세대

배주연 선생님의 글은 ①노동 다큐의 역사적 흐름을 계보적으로 정리하고, ②종종 운동사 내부의 사건으로만 다뤄지거나, 기술적 실험으로 축소되어 서술되던 노동자뉴스 제작단의 위치를 재평가하며, ③노동 재현의 변화 양상을 ‘가시성’이라는 틀로 사유하려는 점에서 중요한 기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날 독립 다큐 연구가 감각, 수행성, 윤리, 존재론 등으로 이동하는 움직임 속에서, 오히려 1980~90년대 노동운동 맥락을 정면으로 다루는 연구가 줄어드는 현실을 고려할 때, 선생님의 글은 운동사 중심의 연구를 다시 호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이 단순한 회고의 차원이 아니라, 노동 다큐의 정치적 기원을 잊지 않도록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공부에 아직 미진한 상황에서 과연 적절한 토론을 진행할 수 있을지 조심스러운 마음이 앞섭니다만, 선생님의 글을 꾸준히 읽어온 독자의 입장에서 떠오른 몇 가지 질문을 통해 발표의 문제 의식을 다시 한 번 곱씹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글은 “1980년대 이후” 노동 다큐의 “시작부터 오늘날까지” “40년에 가까운 노동 다큐멘터리의 역사를 훑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 속에 종종 등장하는 “최근”이나 “최신”이라는 표현과는 달리 글의 실질적 분석시기가 ‘1980년대부터 2010년 초반’에 머물러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한국 다큐 영역에서 2010년이 중요한 것은 이때를 기점으로 ‘다큐멘터리적 전회’라 불릴 정도의 큰 변화가 관찰되기 때문입니다.⁷¹⁾ 하지만 글의 주요 분석 대상 가운데 2010년 이후 제작된 작품은 (산업재해를 다루는 두 편의 영화) <보라>(이강현, 2010)와 <탐욕의 제국>(홍리경, 2012)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들 작품은 분명 2010년대 초반의 중요한 사례이지만, 이를 근거로 2010년대 이후 노동 다큐 전반의 미학적 전환이나 동시대적 경향성을 말하기에는 다소 제한적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글이 “노동 다큐멘터리의 역사를 일별하는 글은 아니다”라고 밝히시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노동 다큐의 최신 경향성을 보여주는 영화들이 다루어지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동시대의 관조적, 사색적, 반영적, 미학적 경향성”이 반영되어 “미학적이고 역사적인 사색과 관조의 장으로 접어든” 한국 노동 다큐의 “저항의 풍경”⁷²⁾의 변

71) 한국 다큐멘터리 장에서 감지된 ‘전회’라 명명될 만큼의 커다란 변화에 대해 다큐 연구자 이승민은 ‘변화와 다양성’이라는 표현으로 압축한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2000년대 후반 이후 한국 다큐멘터리 영화에는 다양한 장르적·매체적 수사법이 도입되었으며, 그 결과 이전 시기와는 구별되는 내적 양식의 변화가 관찰된다. 뿐만 아니라 영화 제작 주체의 다변화, 상영 공간의 확장, 관람 방식의 변화 등 산업적·제도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재편이 이루어졌다.(이승민, 『영화와 공간』, 갈무리, 2017, 26쪽). 이와 같은 인식은 이승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김지훈, 박현선, 채희숙, 이도훈, 조혜영 등 다수의 연구자들 역시 2010년 전후를 한국 다큐멘터리의 ‘전회적 시기’로 서술하며, 이 시기를 기점으로 미학적·제도적 차원에서의 질적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화를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 글이 설정한 연구 대상 시기가 충분히 확장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010년 전반까지로 한정되어 있는 작품 선정에 특별한 기준이나 연구 설계상의 이유가 있는지, 혹은 향후 연구에서 2010년대 중후반 이후의 작품들까지 분석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한편, “비가시화된 자본의 폭력이 신체에 기입되는” 논지를 산업재해의 범주에만 한정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물론 산업재해는 자본의 폭력이 신체에 남기는 물리적 흔적을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사례이지만, 동시에 그 ‘인정’의 과정은 결코 노동자 친화적이지 않으며, 제도적 승인 여부에 따라 폭력의 가시성이 결정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라는 제도적 범주를 넘어 노동의 시간과 조건이 신체에 남기는 미시적·누적적 변형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선생님께서는 1980년대와 1990년대 한국 사회의 노동구조 변동을 짚어주시면서, 이를 노동 다큐의 형식적, 주제적 변화와 연결지어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접근은 노동 다큐의 변화를 단순한 미학적 전환이 아니라, 자본주의 구조의 변화와 연동된 현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자본주의 체제의 변화는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에 이르는 시기를 산업 자본주의의 말기로, 1997년 외환위기와 그 이후의 제도적 재편 - 특히 구조조정, 금융자본의 확대, 노동 유연화 등 - 을 중요한 전환점으로 간주합니다. 2007년 비정규직법 제정 역시 노동 제도의 성격을 바꾼 주요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흐름은 노동의 집단적 기반을 약화시키고 고용 안정성을 해체하는 방향으로 작동해왔습니다.

여기에 더해 2000년대 후반 이후, 특히 2010년대를 거치며 경제적 불평등은 구조화되고 계급 이동의 가능성은 급격히 축소되었습니다. 이 시기의 한국 사회를 두고 일부 연구자들은 후기 자본주의의 한 양상으로서 ‘플랫폼 자본주의’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는 데이터와 알고리즘, 네트워크 효과를 중심으로 재편된 자본의 구조가 노동의 형태와 주체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음을 지적하는 개념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2010년 전후가 한국 다큐에서 ‘전회적 시기’로 언급되는 시점과 ‘플랫폼 자본주의’의 부상이 겹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2010년을 기점으로 다큐의 미학적, 형식적 전환이 일어났다면, 이는 단지 영화 내부의 변화라기보다 자본주의 구조의 재편과도 상응하는 현상으로 읽힐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맥락이 향후 연구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된다면, 노동 다큐의 변화는 더욱 입체적으로 설명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 부분은 앞의 질문과 어느 정도 이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께서서는 롭 닉슨(Rob Nixon)의 ‘느린 폭력(slow violence)’ 개념을 경유하여 한국 노동 다큐를 분석하고 계십니다. 느린 폭력은 가시적·즉각적 파괴가 아니라, 장기적이고 점진적으로 축적되며 감지되기 어려운 구조적 폭력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틀은 19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의 도입과 함께 심화된 구조조정, 비정규직화, 노동의 유연화 등을 설명하는 데 일정한 설명력을 지닙니다. 그러나 이 개념을 1980년대의 노동 현실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다소 의문이 듭니다.

72) 큰따옴표 안 모든 표현은 각주 2

선생님의 글에서도 잘 드러나듯이, 1980년대 노동 현장은 국가 권력과 자본이 물리적 억압과 공권력 투입을 통해 행사한 '즉각적 폭력'이 전면에서 드러난 시기였습니다. 파업 현장에서의 강제 진압, 구속, 해고 등은 은폐되거나 지연되는 폭력이 아니라,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폭력이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느린 폭력이라는 범주는 1980년대의 폭력성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느린 폭력 개념은 2000년대 이후 후기 자본주의가 고착화되고, 금융자본주의가 일상화된 한국 사회의 조건을 분석하는 데 더 적합해 보입니다. 자본의 작동 방식은 점차 즉각적 충돌의 형태보다는 장기적 구조조정, 기업 철수, 투자 회수, 법적 절차의 지연, 사회적 무관심 등을 통해 축적되는 형태로 변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폭력은 사건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축적되는 구조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가 느린 폭력의 전형으로 떠올린 것은 <재춘언니>(이수정, 2022)였습니다. 이 영화는 콜트·콜텍 해고노동자 임재춘의 13년에 걸친 복직 투쟁 중 7년을 관찰한 결과물입니다. 여기에서 자본의 시간은 즉각적 파괴가 아니라 지연과 방치, 소모와 고립을 통해 노동자를 마모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투쟁은 한번의 충돌이 아니라, 지속과 버텨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자본의 폭력은 눈에 띄지 않지만, 바로 그 장기성 속에서 더 치명적으로 작동합니다.

따라서 느린 폭력 개념을 보다 설득력 있게 적용하려면, 1980년대 노동 다큐에 대한 포괄적 설명 도구로 사용하는 대신, 2000년대 이후의 작품들—특히 금융자본주의와 구조적 지연의 시간 속에서 노동의 소모를 드러내는 영화들—을 중심 사례로 삼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기적 맥락에 대한 보다 세심한 조건 설정이 없다면, 느린 폭력은 역사적 차이를 설명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폭력 양상을 동일한 범주로 평준화하는 개념이 될 위험이 있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개인적으로 현재 제가 관심을 두고 연구하고 있는 주제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 많아, 매우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여러 쟁점을 깊이 있게 사유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글을 발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